**Romans 3 – Extremely Lazy or Diligent Christians**

1 Then what’s the advantage of being a Jew? Is there any value in the ceremony of circumcision? 2 Yes, there are great benefits! First of all, the Jews were entrusted with the whole revelation of God.

3 True, some of them were unfaithful; but just because they were unfaithful, does that mean God will be unfaithful? 4 Of course not! Even if everyone else is a liar, God is true. As the Scriptures say about him, “You will be proved right in what you say, and you will win your case in court.”

5 “But,” some might say, “our sinfulness serves a good purpose, for it helps people see how righteous God is. Isn’t it unfair, then, for him to punish us?” (This is merely a human point of view.) 6 Of course not! If God were not entirely fair, how would he be qualified to judge the world? 7 “But,” someone might still argue, “how can God condemn me as a sinner if my dishonesty highlights his truthfulness and brings him more glory?” 8 And some people even slander us by claiming that we say, “The more we sin, the better it is!” Those who say such things deserve to be condemned.

9 Well then, should we conclude that we Jews are better than others? No, not at all, for we have already shown that all people, whether Jews or Gentiles, are under the power of sin. 10 As the Scriptures say, “No one is righteous—not even one. 11 No one is truly wise; no one is seeking God. 12 All have turned away; all have become useless. No one does good, not a single one.” 13 “Their talk is foul, like the stench from an open grave. Their tongues are filled with lies.” “Snake venom drips from their lips.” 14 “Their mouths are full of cursing and bitterness.” 15 “They rush to commit murder. 16 Destruction and misery always follow them. 17 They don’t know where to find peace.” 18 “They have no fear of God at all.”

19 Obviously, the law applies to those to whom it was given, for its purpose is to keep people from having excuses, and to show that the entire world is guilty before God. 20 For no one can ever be made right with God by doing what the law commands. The law simply shows us how sinful we are.

21 But now God has shown us a way to be made right with him without keeping the requirements of the law, as was promised in the writings of Moses and the prophets long ago. 22 We are made right with God by placing 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this is true for everyone who believes, no matter who we are.

 23 For everyone has sinned; we all fall short of God’s glorious standard. 24 Yet God, with undeserved kindness, declares that we are righteous. He did this through Christ Jesus when he freed us from the penalty for our sins. 25 For God presented Jesus as the sacrifice for sin. People are made right with God when they believe that Jesus sacrificed his life, shedding his blood. This sacrifice shows that God was being fair when he held back and did not punish those who sinned in times past, 26 for he was looking ahead and including them in what he would do in this present time. God did thi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for he himself is fair and just, and he declares sinners to be right in his sight when they believe in Jesus.

27 Can we boast, then, that we have done anything to be accepted by God? No, because our acquittal is not based on obeying the law. It is based on faith. 28 So we are made right with God through faith and not by obeying the law.

29 After all, is God the God of the Jews only? Isn’t he also the God of the Gentiles? Of course he is. 30 There is only one God, and he makes people right with himself only by faith, whether they are Jews or Gentiles. 31 Well then, if we emphasize faith, does this mean that we can forget about the law? Of course not! In fact, only when we have faith do we truly fulfill the law.



**로마서 3 – 심하게 개으르거나 근면한 기독교인들**

1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2 여러 모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3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4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5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논리대로 말합니다.) 6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7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9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낫단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죄인입니다. 10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15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16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17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 18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19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21 그러나 지금은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2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4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5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26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27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28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29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30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해 주십니다. 31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